

전남국제사격장 전지훈련 열기로 '후끈'

전남국제사격장이 한국 사격의 장미빛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의 총성소리가 연일 울려 퍼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화제다.

다음아닌 '2018년 사격 청소년 대표 하계전지훈련'이 지난 달 14일부터 시작돼 2일까지 20일 동안 나주 전남국제사격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지훈련단은 총감독인 이진행 서울체육고등학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 6명과 공기소총 선수 22명, 공기권총 선수 22명 등 총 50명에 이른다.

이번 훈련은 잠재력있는 우수 청소년 사격선수를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차 한국 사격의 미래를 짊어질 '사격 영재'들을 발굴·육성하는 통로 역할로 통용되고 있다.

특히, 전남국제사격장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대표팀 후보선수 50명이 전지훈련을 실시했던 곳이다. 이번 청소년 대표 하계전지훈련까지 포

2018년 사격 청소년 대표 50명 내일까지 훈련소화 올해 4개 전국대회 개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선도

합하면 그야말로 '한국 사격의 요람'으로서 명성을 굳혀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남국제사격장은 매년 3~4개 전국규모대회를 개최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올해도 제8회 전남도지사배 전국사격대회(2월), 제3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고대학체육대회(4월), 제48회 봉황기전국사격대회(6월), 제36회 전국실업단사격대회(7월) 등이 연이어 개최돼 나주를 비롯한 전지역에 적잖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 바 있다.

덧붙여 이번 '2018년 사격 청소년 대표 하계전지훈련'은 전지역 선수들의 향후 '국가대표 등용문'이기도 하

다.

전남지역 소속 선수는 공기소총과 공기권총에 각각 1명씩 포진하고 있는데, 공기소총에는 임정현(여수여자고등학교 1년)이, 공기권총에서는 이수민(전남체육고등학교 1학년)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제8회 전남도지사배 전국사격대회(나주)에서 여고부 10m공기소총 개인전 1위를 차지한 임정현은 집중력과 담력이 좋아 게임운영능력만 보완하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수민 또한 2018년 제34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대구·5월) 여고부 25m 권총 개인전 금메달리스트로서, 게임운영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



2018년 사격 청소년 대표 선수들이 전남국제사격장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다. 다만, 집중력 부족이 '욱의티'다. 김홍식 전라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남국제사격장이 2018년 사격 청소년 대표 하계전지훈련을 비롯해 각종

전국대회 개최는 물론 전국의 사격팀 전지훈련지로 활용되는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나주가 사격 메카로, 국가대표 발굴

등용문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힘차게 노젓는 조정 단일팀

지난달 31일 오후 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카누 용선·조정 남북단일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조정 남자 에이트 남북단일팀 선수들이 힘차게 노를 젓고 있다.

고흥고 신비·신록 '역도 형제' 3관왕

문체부장관기학생역도 남고부 69kg급·56kg급 독식

고흥고등학교 신비(3년)·신록(1년) '역도 형제'가 제4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학생역도 경기대회에서 각각 3관왕에 올랐다. 신비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양구용화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남고부 69kg급 인상, 용상, 합계에서 모두 우승했다.



신비

신록

신비는 인상 130kg, 용상 160kg, 합계 290kg으로 이영민(충남체고), 한병하(전북체고)에 비해 월등한 기록 차로 3관왕을 차지했다.

신록(1년)도 이에 뒤질세라 56kg급에서 인상 105kg, 용상 133kg, 합계 238kg으로 합계 2위 최한주(충남체고)와 합계 3위 김경민(원주)을 제치고 3관왕에 올랐다.

올해 전국대회에 첫 출전한 신비와 신록은 예전의 각종 대기록 명성만큼 월등한 기량이었다.

신비는 중학 3학년 시절인 제44회 전국소년체전에서 3관왕을,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에서는 금 2·동 1개를, 2017년 제98회 전국체전에서는 금 2·은 1개를 각각 획득한 바 있다.

신록 역시 2016년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은메달 2개, 2017년 제46회 전국소년체전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중학무대를 주름잡았다. /최진화 기자

남북 단일팀 "평화·번영의 길 함께 가자"

AG 카누·조정 선수들 탄금호서 합동훈련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남북 카누·조정 단일팀 선수들이 두 손을 맞잡고 한 배를 탔다.

남북 선수들은 지난달 31일 충북 충주탄금호 경기장에서의 합동 훈련에 앞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마련한 격려 행사에 참석해 밝은 표정으로 선전을 다짐했다.

남북 선수들은 서로 다른 옷차림으로 행사장에 들어왔다.

남북 선수들은 자유롭게 각자 다른 훈련복을 입었지만, 북측 선수들은 흰색 티셔츠와 흰색 모자, 파란색과 검은색 경기복을 맞춰 입고 열을 맞춰 입장했다.

북측 선수들은 모여있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표정이 굳어있었다. 그러나 남북 선수들을 만나자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북측 여자 선수들은 노를划며 검색한 남북 카누대표팀 김현희(부여군청)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북측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임경해 30일 남측 선수들과 첫 훈련에 나섰다. 단 하루 만에 친분을 쌓은 듯했다.

남북 선수들은 기념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하나다"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도종환 장관은 북측 선수들에게 "7천만 겨레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환영한다"라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탁구선수권 단일팀으로 세계에 감동을 안긴 것처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합심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뜨거운 감동을 주시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도 장관은 행사장을 찾은 북측 선수단

한호철 단장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도 장관은 "우리는 한 배를 탄 한 운명이라는 것을 조정, 카누 종목에서 확인하게 됐다"라고 하자 한 단장은 "지금 함께 노를 젓고 있지 않나"라며 웃었다.

도 장관이 "함께 노를 저어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하자 한 단장은 "번영의 길"이라며 손을 맞잡았다.

올해 가을 남측에서 열릴 예정인 북측 공연 '가을이 왔다'에 관한 의견도 주고 받았다.

도종환 장관은 "저희가 공연장을 잘 알아보고 있다"라며 "가을이 왔다" 공연도 성가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육과 문화예술이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한호철 단장에게 말했다. /연합뉴스



제48회 대통령배 시도복싱대회에서 고등부 종합 1위 등 우수성적을 거둔 광주 복싱 선수들이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복싱 황금편치로 메달 싹쓸이

대통령배 고등부 종합 1위... 조성철 최우수지도자상

광주 복싱이 황금편치를 선보이며 오랜만에 메달밭에 앉았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달 25일부터 7일간 경북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제48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이 고르게 메달을 획득하는 등 선전했다고 31일 밝혔다.

-69kg급에 출전한 박건(광주체고 3년)은 에이스답게 돌주먹을 날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91kg급의 서순중(3년)도 초반부터 상대를 코너로 몰며 묵직한 주먹을 날렸다. 또한 성현태(1년, -46kg급)가 은메달을, 홍희영(3년, -64kg급)이 동메달을 따

들의 고른 활약으로 고등부 종합 1위에 올랐다.

일반부에서는 오철중(-69kg급)과 김대환(-81kg급, 이상 광주시체육회)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대학부에서는 함승우(-52kg급, 남부대 2년)가, 중학부에서는 이창록(-42kg급, 광주체중 1년)과 김종원(-57kg급, 광주체중 2년)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다. 여자부에서는 박유리(-51kg급, 광주시체육회)가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성철 광주체육중·고 코치는 중·고등부에서 고른 실력으로 메달을 휩쓰는데 기여해 우수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최진화 기자

우즈 '텃밭'에서 부활 축포 쏘나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존슨·몰리나리와 대결

에서 16번 출전해 무려 8번이나 우승했다. 두번에 한번 꼴로 우승했다.

우승 못한 8차례 대회에서 다섯번은 톱10에 들었고 네번은 5위 이내 입상이었다.

2000년 우승 때 세운 대회 최소타(259타)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채 남아 있고 2000년과 2013년에 한번씩 기록한 코스레코드(61타) 역시 타이 기록은 3번 나왔지만 아무도 넘어서지 못

했다.

우즈는 "파이어스톤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서 "페어웨이 양쪽에 키 큰 나무가 늘어섰고 쪽쪽 뻗어나가는 이리프 코스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회는 또 우즈가 가장 최근에 우승을 거둔 무대이기도 하다.

우즈는 지난 2013년 이 대회에서 PGA투어 통산 79번째 정상에 오른 이

후 허리, 무릎 부상으로 긴 침묵에 빠졌다. 이 대회도 2014년 기권한 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출전하지 못했다.

우즈는 앞서 디오픈에서 우승 경쟁을 펼친 끝에 공동6위에 오르면서 세계랭킹 50위 이내에 들어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이 대회 출전권을 막판에 잡았다.

디오픈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우즈가 완벽한 재기를 알리는 축포를 터트리기에는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은 더없이 알맞은 장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즈가 5년 가장 멈춘 우승 시갯바늘을 다시 돌리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미국)가 '텃밭'에서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통산 80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우즈는 오는 3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오하이오주 애커런의 파이어스톤 컨트리클럽 남코스(파70)에서 열리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한다.

이 대회가 열리는 파이어스톤 컨트리클럽은 우즈에게는 '텃밭'이다. 텃밭이 집에 딸려있어 언제든지 가서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밭이라는 뜻이라면 딱 맞는 말이다.

우즈는 파이어스톤에서 치러진 대회